

활동 서면 보고와 현안 토의한 사목협의회



금년 3월 31일 『함께하는 기도와 화합의 척사대회』는 각 분과장이 행사 기획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주 교중미사 후 결정하기로 하고, 이 행사는 전 신자가 참석하여 당일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이룰 수 있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 날 만큼은 본당 부채 상환 걱정은 접어두고 푸짐한 상품을 마련하여 입상자에게 수여하고, 2월 한 달 동안 금액으로 1만 원 상당 이상의 기증품을 접수받아 당일 시간별 행운권 추첨으로 수여하기로 했다.

③ 사회사목분과에서 건의한 전 신자 헌혈에 대한 건은 헌혈 사업을 교육·선교·생명분과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우리 본당의 실정이 헌혈할 적정 연령이 넘은 신자가 많고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④ 여성구역분과에서는 설맞이 선물용 상품 판매에 대하여 상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사목협의회는 2019년 1월 20일(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201호 요한 방에서 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목협의회를 개최하여 1월 현안 문제와 연중행사인 3월 척사대회 계획을 협의하였다.

회의는 사목회장의 간단한 신년도 인사말과 각 분과 활동 서면 보고와 주임 신부님의 말씀이 있었다.

① 전례분과의 반주자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목협의회 위원들은 같은 생각을 하였다.

② 기획·홍보분과는 본당은 곧 성지와 같으니 아끼고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주차 시 사목위원만큼이라도 뜻을 같이하고 전면주차하여 전신자에게 모범을 보이자는 내용의 서면 보고를 하였다.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 주임 신부님께서 “올해는 서울대교구 사제 연례 피정이 2월19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에 2월 19일과 26일은 제가 미사 집전을 할 수 있으나 그 외 미사 집전을 외부 신부님이 하시게 되면 성무활동비 지급에 대해 걱정하였는데 마침 평화방송국 사제들이 홍보 겸 미사 집전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녀님 상주 근무에 대해서는 원장 수녀님께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파견은 하되 상주하실 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견만 할 경우 레지오 훈화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 건진성사는 11월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교중 미사에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고 말씀하시고 마침기도와 축복을 주시고 회의를 마쳤다.



